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여호수아의 선택 (여호수아 24:1-32)

여호수아는 군인이면서 지도자로 자기 생명이 끝날 것을 예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버릴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길었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14절)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추상적인 설교가 아닌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어린 설교를 한 것입니다.

1. 믿음으로 한 선택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논리적인 말로 회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에 살게 했고 애굽에서 내려가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땅으로 모세를 통해 다시 이끌어낸 여호와임을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승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만과 방종으로 행했고, 그 결과 그들은 아이 성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3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5절).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전지에서 싸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 자원하는 선택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수메리아나 바벨론 문화에 나타난 신들이고, 홍해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고대 애굽인들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여호수아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은 여호수아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눔만 섬길 것인지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옛 사람 때 섬기던 신들, 곧 자기 사랑과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쾌락과 자기 위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속적인 선택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한 말씀의 사상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선택으로 동물처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결단하게 하되 감정적이 아닌 지적 선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에서 섬기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그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3. 진실한 선택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달려 간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선택한 바를 밝힙니다(16-18절).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이 그리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19-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21절)라고 다시금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거듭하여 질문했고 백성들은 이에 확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약속에 대하여 큰 돌을 취하여 하나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26-27절).

여호수아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은 여호수아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만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음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지나고 자녀들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낡은 것이라 하고 성경은 구세대의 것이라고 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결코 그렇게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면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6 송년음악회

12월31일 주일 오후 10시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2006년 한해를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새로 오는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송년음악회는 청년들의 사회로 솔로, 중창, 연주로 나뉘어 솔로는 우리교회 지휘자들과 성악전공자들이 출연하고 중창은 헵시바 중창단과 성악전공자

들의 찬양, 안수집사 중창단과 어린이 찬양대가 출연한다.

연주는 파이프오르간, 아멘관현악단, 핸드벨 콰이어 연주 등으로 준비된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인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하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봉사지원 오늘 마감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07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의 봉사지원이 오늘로 마감된다..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육부서, 찬양대 그리고 기타 부서들이 운영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3대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다.

교인들이 나날이 증가 되는 요즈음 모든 부서에서 성도들의 봉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여 받은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봉사지원서는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2007년 신임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일정 나와

2007년에 새로 임명받는 신임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일정이 나왔다.

신임서리집사 후보들은 11월 18일(토) 새벽 6시15분 혹은 19일(주) 저녁 6시15분에 열리는 교육 중 한번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고 23일(목), 24일(금) 오후 7시 혹은 25일(토) 새벽6시에 있는 면접 시간을 택해 면접을 받으면 된다.

사진 촬영 봉사자 모집 2007년 요람 교우기업 게재

교회 내에서 열리는 각종 예배와 모임 등을 촬영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사진에 관심 있고 촬영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07년 교회요람에 교우기업을 게재 한다.

섬김위원 요람에 사업체 기재를 원하는 성도와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11월30일까지 접수 양식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703호 멀티미디어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일 전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성 집사(전도위원회 간사)

이종윤 목사님은 수 차례에 걸쳐서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이며 각종 모임이나 회의는 짧게 하거나 평일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무부서인 전도위원회는 말씀을 받아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하고 이번 주일부터 온 교회가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우선 전도위원회가 전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전도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1층 로비에 전도지원 본부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도대상 지역은 대치 34동으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약 1만 명 거주)으로 교회에서 거리가 가깝고 접근이 용이하여 한 시간 안에 전도하기에 알맞습니다.

각 부서나 성도 개인이 2인 1조로 편성해 오면 전도지역을 알려드리고 전도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전 교인이 전도 요원화 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금주의 성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피택자 교육을 마치며

강은숙 집사(3교구)



피택 권사가 된 것도 마음에 큰 짐인데 이번 교육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의 피택자 교육과 성경교재 공부, 전도학교 훈련,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후반기 교육을 마칠 즈음에는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문득 성경구절을 중얼거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일 새벽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와 도고를 드리게 된 것은 제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내 가족과 작은 주변에만 관심 쏟고 살아왔던 반면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며 더 넓게 보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을 내어 놓기까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에 빛난 자로 살겠습니다.



차도훈 집사(14교구)

지난 5월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고 주님께 드린 가장 첫 번째 말은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자신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크게 밀려 왔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6 개월간의 교육 기간동안 저의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소아적인 믿을

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뼈저리게 회개 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수 집사로 피택받은 자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성도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까지 평신도 시절 나그네 같은 모습과 소극적인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지체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주님의 몸 되신 서울 교회를 믿음과 순종으로 섬기며, 주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협력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호흡을 같이하고,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지순례단 현지보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필그림 성지순례팀은 감동과 감사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순례팀은 터키의 이스탄불, 이집트의 카이로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해발 2285m의 거룩한 산 시나이산에 도착한 후, 새벽 일찍 등장하여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동적인 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임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빛 된 삶을 살자고 간절히 역설하였습니다. 길고 긴 광야길을 거쳐 목요일에는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은 온종일 뜨거운 기도와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관련된 주요 장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위임목사님께서 그때 그때의 주님의 행적과 일치하는 은혜 넘치는 말씀과 기도회 인도는 비전여행의 진가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식적인 믿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음을 기념하는 감람산! 의 '눈물교회'에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며, 철저히 율법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구원과 진정한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남아계시는 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그림 비전순례팀-

사명자의 기도-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장윤기 성도(12교구)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가정을 세우고 복된 두 아이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된 저희가 부족하여 양육의 부담감에 힘도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며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허락하시사 구원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이들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시며 그들이 세상 어느 곳에 거하든 함께 하시사 저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 땅이 변화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준비하신 저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며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고흥기 목사(육도교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하여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더욱이 아무나 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술한 우여곡절과 중도 하차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번 학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여 제대로 마무리 하리라는 각오로 등록하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배 목사님께서는 10년 근속 출석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무척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주위의 후배나 제자 또는 동역자에게 "와 보라"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저보다 먼저 수료하였거나 재학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것은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과 많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시대의 거목이신 이종윤 목사님께서 그토록 바쁜신 중에도 모든 일정을 세미나에 묶어 놓고 사랑과 희생으로 왜곡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를 하거나 가르치면서 부딪히는 일이지만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말씀을 듣거나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10월2일 강의 중에 말씀하신 딜타이의 해석학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해한 것이 체험이 되고 체험된 것이 표현이 되며 표현된 것이 이해가 된다'는 딜타이의 해석학이 제게 크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렵듯이만 이해되던 말씀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명확해졌고 그 깨달음을 목회현장에서 설교로 전도로 표현할 때 그 말씀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 과정을 수료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함께 수료하는 다른 분들도 한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10년 근속 출석상을 받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모두 김치 회원이 됨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것을 다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은혜로운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Saddleback church Rick Warren"

Reach one more for Jesus!

Before I(live) close my(our) eyes, One more for Jesus, to reach one more.

천국시민양성

서울성경대학을 마치며...

역대기 성경공부를 마치며...

김숙자 성도(4교구)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의 여건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금요일 새벽에 정수길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역대기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 레위기와 역대기를 소홀히 읽었다는 생각에 마음에 걸려서 봄에는 레위기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역대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로 잔잔함 속에서도 열정을 품고 강의하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딱딱한 호두 껍데기 안에 있는 사각사각하고 고소한 호두 알맹이를 먹는 기분이 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참된 존재가치를 안다는 다윗왕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백성을 다스린 솔로몬왕의 모습, 혼란한 시기에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와 심판, 회개와 개혁의 중요성을 깨달은 요시아왕 등의 모습은 더없이

이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믿음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던 많은 왕들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 현실이 무척 마음 아팠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성껏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역대기반에서 함께 공부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대학 청년부 형제자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같이 포근한 교제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밤사에 감사하므로 말씀을 기다리는 장석남 목사님의 누가복음 받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전하심에 성령 충만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흐름에 따라 친취적이며, 창의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율동)은 말씀과 잘 적용이 되어 저는 시간 시간 송이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자의 은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9:10)”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받은 복음의 빛 진 자들이여, 구별되게 살라(Be Different!)는 말씀을 나침반으로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순종자가 되렵니다.

누가복음 성경공부를 마치며

곽미숙 집사(13교구)

저로 하여금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예비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도 함께 동행하시어 은혜 중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필그림 비전투어팀과 함께 성지순례 중 11일(토) 서울도착예정이다.

■ 이사: 권오철 집사, 박영애 집사(12교구) 개포동 주공 1단지 16-504 T.6080-4171

오민세 집사, 임경희 집사(12교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삼성4차 105-1103 T.031-261-7952

오교식 집사, 김은순 집사(10교구) 강동구 천호동 36-10 우성빌리지 402호 T.477-5926

■ 주간식당봉사: 당회원(11월5일) 스테반회(11월 12일)

■ 금주의 식사: 정동학 집사 김복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김형신 집사 현기옥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초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행복의 길

김분이 성도(디아스포라부)

한창 공부할 나이에 혈혈단신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 제 앞의 현실의 벽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다.

그러나 주님은 품만 나온 저를 서울교회로 인도하시고 탈북자들의 모임인 디아스포라부에 정착하게 하시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같은 부서에서 남편이 될 김춘일씨를 만나 결혼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막상 결혼 날짜는 잡았지만 무엇을 어는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것저것 도와주셨습니다. 저축했던 저금을 깨서 결혼반지를 해주시며 결혼식의 모든 절차를 도와주신 디아스포라

라부 교사님들, 신랑 양복을 해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도우시며 힘을 주신 집사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직도 북한에 계신 친정어머니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계시는 시어머님께 지금은 큰절을 올리지 못하지만 우리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족이 기쁨의 눈물로 상봉할 날을 허락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복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 모두

를 부모님과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 부부도 힘을 합쳐 열심히 살며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과 서울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6 사망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our(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선교사 파송, 피택자 임직식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4.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